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8.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**터키, 대도시 폭탄테러 준비한 혐의로 PKK 조직원 체포**

- 8.16 터키 보안당국은 폭탄테러 첩보를 입수하여 아다나州 사리캄 지역에서 검문검색 작전 중 PKK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, 同人은 37kg의 트리니트로톨루엔(TNT)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발표

  * 보안당국은 용의자가 PKK/YGP 테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
미 주

○ **美, 親헤즈볼라 레바논 정치인·기업인 제재 준비**

- 8.12 WSJ은 美 정부가 레바논 폭발 참사를 계기로 헤즈볼라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반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워 親헤즈볼라 레바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자산동결·미국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

  * 국제통화기금(IMF)과 세계은행의 지원금으로 레바논 개혁 압박 병행 추진

○ **美 법원, KKK 지도자 징역 6년 선고**

- 8.12 美 법원은 리치몬드市 북부에서 트럭을 몰고 흑인 인권운동 시위대를 향해 돌진(6.7, 부상 3)한 백인우월주의 비밀 결사단체 지도자 「해리 로저스(36)」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고 발표

  * 검사는 同人을 '공인된 KKK의 지도자이자 남부연합 이데올로기 선전운동가'로 표현

○ **美, ISIS 등 테러단체 자금조달 사이버 계정 압수**

- 8.14 美 법무부는 ISIS·알카에다·하마스가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비밀리에 침투, 100만달러 이상이 담긴 수백 개의 암호화폐 계정과 후원세력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했던 페이스북 계정을 압수했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**필리핀, 극단주의 무장단체 '아부사야프*' 副지도자 체포**

- 8.14 필리핀 경찰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납치하여 몸값을 노리거나 테러 등을 일삼는 '아부사야프'의 부지도자 「수수칸」을 남부 다바오市에서 13일 체포했다고 발표

  *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/테러단체 지정 : UN, 미국, 영국

○ **해수부, 항만보안 강화한 '국제선박항만보안법' 시행**

- 8.19 개정 '국제선박항만보안법' 및 同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△청원경찰·특수경비원이 항만시설內 불법행위 방지, △경호·경비 및 검색 등을 위해 권총·분사기·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·소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효과적인 항만시설 보안 관리 기대

  *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

중 동

○ **이라크 총리, ISIS 위협에 미국의 지원 필요성 언급**

- 8.17 이라크 총리는 3년전 IS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음에도 ISIS 위협은 여전하다고 평가하며, "미국의 지원이 요구되나 과거와 같은 군사적 지원보다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"고 언급

아프리카

○ **보코하람, 대원 부족으로 소년兵 모집 시작**

- 8.13 다국적연합군(MNJTF)은 보코하람이 최근 상당수 대원의 항복으로 전력 손실을 겪은 이후 소년병 모집을 시작했고, 이는 청소년에 대한 조종과 세뇌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

  *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무장단체가 18세 미만 아동 고용 및 인질로 사용을 금지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터키, 가지안테프州 결혼식장 자살폭탄테러

○ ’16. 8. 20 23시경 터키 가지안테프州* 야외에서 열린 쿠르드 전통 결혼 축하 파티에서 ISIS로 추정되는 10대 미성년자에 의한 자살 폭탄테러로 51명 사망, 69명 부상

* 가지안테프州는 내전 중인 시리아 알레포州에서 북쪽으로 95km 떨어진 곳으로, 난민캠프가 많고 테러단체가 활발히 활동하여 치안이 매우 불안

○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“이런 테러의 의도는 아랍, 쿠르드, 투르크 사이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 종족·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”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

-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(HDP)도 이번 결혼식은 당원이 관계된 예식임을 언급하며 同 테러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

○ 현지 전문가들은 공격 발생하기 몇 시간 전 터키 총리가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하자, 수세에 몰린 ISIS가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보복 공격이라고 분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돈바스 전쟁(War in Donbass) >

■ ’14.2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대규모 봉기(유로마이단)로 수립된 親서방 정부에 반발하는 돈바스(도네츠크, 루간스크) 지역의 親러시아계 시위가 분리독립 요구로 비화되면서 시작된 親러 반군과 정부군 간 전쟁

* 親러시아계의 시위가 동시에 시작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개입해 합병(’14.3)

■ ’14.4～현재까지 20여 차례의 휴전을 거치며 양측에서 13,000여명이 전사했으며, 정부군 사망자에는 최소 13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, 반군측에 가담한 러시아인 1,500여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산